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요한 10,14-15)



〈착한 목자〉, 최영심 作, 1996년, 수서동 성당, 서울

[제1독서] 사도 4,8-12

[화답송] 시편 118(117),1과 8-9.21-23.26과 28-29
(◎ 22)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
- 당신이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제2독서] 1요한 3,1-2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음] 요한 10,11-18

성소 주일

부활 제4주일은 ‘성소 주일’이다. ‘하느님의 부르심’인 성소(聖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교회는 이 모두를 존중하는 가운데, 오늘 성소 주일은 특히 사제, 수도자, 선교사 성소의 증진을 위한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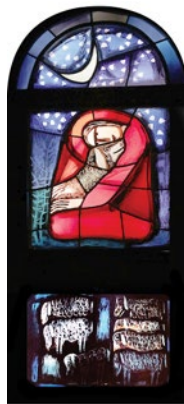
성소 주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진행되던 1964년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마태 9,37-38) 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정하였다. 이날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소를 계발하고 육성하는 일에 꾸준한 기도와 필요한 활동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를 자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성화 해설

목자와 양은 얼굴을 맞대며 서로 간에 긴밀한 일치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 목자의 빨간 옷은 양 떼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늘에는 달과 별들이 사랑의 관계에 있는 목자와 양 떼를 축복하듯이 쏟아져 내리고 있으며, 아래에는 한 무리의 양 떼들이 목자의 보호 아래 조용히 안식을 취하고 있다.

〈정웅모 신부의 복음을 담은 성화〉



〈착한 목자〉, 최영심 작

복음 묵상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소,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신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첫영성체를 하고 복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지금까지 신학생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고 그저 나만이 바라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휩싸여 신학교를 그만둘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던 부모님과 교우들의 얼굴이 떠올라, 어린 시절부터 꿈꾸어 오던 사제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느님, 저는 죽어도 신부가 된 다음에 죽어야겠습니다. 처음부터 제 마음에 신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넣어 주지 마시지, 이제 와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찌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박박 우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처럼 될까 봐 주님의 기도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을 쓰며 한 달을 씨름하니 모든 힘이 빠져 나중에는 입을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하느님과의 일치, 성인이 되는 것이구나! 그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한 길이 여럿 있는데, 어떤 이는 사제성소, 어떤 이는 수도 성소, 어떤 이는 혼인 성소를 선물로 받는 것이구나. 그 선물은 더 귀하고 덜 귀하고,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느님이라는 큰 산을 오르는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일 뿐이구나. 주님께서 ‘너의 길은 이 길이 아니고 저 길이다.’ 하신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면 되는구나. 다만 지금은 신학교에 있으니 내가 받은 선물은 사제의 길이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선물에 합당한 이인가?’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받은 그 엄청난 선물에 합당한 이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여 잘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은 무엇이고, 그 선물에 합당한 이가 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사제성소와 수도 성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받은 성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기도하고 힘이 되어 줍시다. (서철바오로 신부)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성 요셉: 부르심의 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해 12월 8일, 요셉 성인이 보편 교회의 수호자로 선포된 지 150주년을 기념하여 성인께 바치는 특별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요셉 성인은 특별한 인물이지만 동시에 “우리 저마다의 인간적 상황과 매우 밀접한” 인물입니다. 성인은 딱히 놀라운 일을 한 것도, 고유한 은사를 받은 것도,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 만한 특별함을 드러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 하느님의 눈에 특별해 보이는 무엇인가를 성취했습니다.



요셉 성인은 우리 저마다의 부르심에 있어 세 가지 핵심 단어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꿈**입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 꿈들을 보여 줍니다(마태 1,20; 2,13,19,22 참조). 꿈을 꿀 때마다 요셉은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성인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꿈이 안내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첫 번째 꿈은 그의 약혼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그가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그를 이집트로 피신하게 하였지만,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한 세번째 꿈 이후, 네 번째 꿈은 다시 한번 그의 계획을 변경하게 하여 나자렛으로, 곧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실 곳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온갖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도 그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를 찾았습니다.

부르심도 이와 같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게 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 주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섬김**입니다. 이는 요셉 성인의 여정과 성소의 여정을 특징짓는 말입니다. ... 실제로 기꺼이 섬기려는 마음에서 그분의 보호하는 마음이 나왔습니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갔다.”(마태 2,14)라고 하는 복음서의 말씀은 가족의 선익을 위하여 요셉 성인이 민첩하고도 헌신적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사려 깊고 배려하는 보살핌이 참다운 성소의 징표이며 하느님 사랑으로 감도된 삶의 증거입니다. ...

이에 더하여, 요셉 성인의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소를 관통하는 세 번째 특징인 **성실성**이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마태 1,19)입니다. 요셉은 날마다 조용히 일하는 가운데 하느님께 그리고 하느님 계획에 인내로이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너그럽게도 여러분은 하느님을 여러분 삶의 꿈으로 택하였습니다. 순간의 기쁨만을 가져오는 덧없는 선택과 감상의 시대에 강력한 증거가 되는 성실성을 통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형제자매들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보호자이신 성 요셉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빕니다!

● <전문보기: <https://cbck.or.kr/Notice/20210190>>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이 항구히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본당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성소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본당의 **이동한 다니엘**, **이효빈** **바로로 신학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마음을 모아 도움을 청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절이 아닌 순종으로 세상이 구원받게 하셨으니 우리도 순종과 사랑으로 지내는 성모성월이기를 기도합니다.



<바로로발콘텐츠>

1 예비자 환영식 "기도로 힘을 얻고 삶으로 선포하자"

- 5월 한 달을 예비자 모집 기간으로 정하고 미사 후에 선교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 예비자 환영식 : 6월 6일(일) 오전 10시 미사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복음선포의 사명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2 2차 현금 - Catholic Home Missions Appeal

-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21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같은 배에서 함께 노를 저어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4 레지오 주회 안내

- 레지오 주회는 코로나 19로 브레시디움별로, 현재대로 비대면으로 합니다. 함께 공동으로 바치기로 했던 기도는 취소되었습니다.

5 2021년도 사도 임원 회의

- 4월 23일(금)에 2021년도 사도 임원회의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 성당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 미사에 참석할 때나 성당에 오실 때는 백신점종 유무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성 요셉의 해

- 성 요셉의 해(2020년 12월 8일 - 2021년 12월 8일)를 맞아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를 드리며 특별 대사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 요셉의 해 안내 및 특별 대사의 은총 보기 :
<https://cbck.or.kr/Notice/20210029?gb=K1200>
<https://cbck.or.kr/Notice/20210030?page=3&gb=K1200>

8 2021년 하상 한국학교 여름학기 등록

- 입학 대상 : Rising K ~ Rising 12th
- 학사 일정 : 2021년 6월 21일(월) ~ 7월 29일(목) 6주 (월 ~ 목, 9:30am ~ 12:30pm)
- 등록 : 선착순 80명(First based up to 80 students)
- 학비 : 등록비(\$50, 환불 안됨)가 포함된 비용
첫째 자녀: \$400, 둘째 자녀: \$380,
셋째 자녀: \$360
- 온라인 접수:
<https://forms.gle/KtTe6QRocM6FE3Xu5>
- 문의 : 교감 (571) 217-8941

부활 제대 꽃 봉헌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명단)

박이선 유스티나, 조선우 로사, 이규석 프란치스코
박정호 토마스아퀴나스, 전수일 야고보, 길형기 빈센트
장영옥 세실리아, 장용수 베드로, 장용지 엘리사벳

본당 승격 25주년 준비



감사 미사

- 10월 3일(일) 오후 3시(마이클 버빗지 주교님 미사 집전)

매 미사 시작 전 25주년 기도문

-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일치를 지향하며 미사 전에 본당 승격 25주년 기도문을 바칩니다.
- 기도문은 주보대에 있습니다.

25주년 역사 기념집 원고 모집합니다

- 출판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기념집 원고 모집을 당분간 지속하고자 합니다. 신앙과 관련된 수필, 신앙수기, 시, 논단 및 청소년 발언대, 우리반 자랑 등 어떠한 글이라도 환영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전영완 루카 571-217-9595

25주년 기념 추억의 사진 공모전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집 발간을 위해 25년 추억의 사진들을 기념집에 담고자 하니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 : 성당에서 찍은 사진들, 성당 행사 활동 사진, 성당 관련 사진 등
 - 접수 기간 : 4월 1일 - 5월 30일
 - 참가 대상 : 성 정 바오로 성당 관련 사진을 간직한 사람은 누구나
 - 접수 방법:
 - ▷ 웹사이트: 온라인 등록 폼 사용
 - ▷ E-mail : 단체부 부회장 (sjh5691@gmail.com)
 - ▷ 본당에 비치된 응모함
 - ▷ 본당 사무실로 우편 접수 (Attn : 사진 공모전)
- 주소 :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 자세한 내용은 본당 홈페이지 **소식과 나눔 > 알림마당 > 추억의 사진 공모전**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주년 기념 본당 설문조사

- 설문지는 본당 설문지 함이나 사무실에 제출해 주세요.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부활 제 4주간 : 마라 1-3, 묵시 22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4월 18일(부활 제3주일)

주일헌금	\$ 3,334.00
교무금	\$ 11,380.00
교무금(신용카드)	\$ 660.00
감사헌금	\$ 420.00
온라인봉헌	\$ 2,925.00
합계	\$ 18,719.00

♥ 주일헌금 및 2차 현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4월 28일(수) 오전 6:15-6:45
5월 1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김태진 주임 신부님의 주일 미사 강론
- CBCK 미디어교리 - 성품성사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4월 29일(목) 오후 5:00-6:00
4월 30일(금) 저녁 8:00-9:00
5월 2일(일) 오전 6:00-7:00

1. CPBC 뉴스
2. 미니 시리즈 순례 - 코카서스 3국
3. 나의 하느님 - 인생은 아름다워, 김 발렌티노

World Day of Prayer for Vocations 성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

April 25, 2021



Prayers of the Faithful



For young men and women; That God may give them the gift of understanding to discern their service in the Church, the priesthood, diaconate, or consecrated life; And for the gift of courage to follow His call. We pray to the Lord...
For young people; That they may know the personal love of the Lord for them, and respond with open and generous hearts. We pray to the Lord. ...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정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챌탈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1956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GCOOP 케어셀라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갈라라) 703-732-3836	광고 접수중!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안내

주일미사 생중계
 매 주일 오전 10시 미사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생중계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지난 주일 미사도 본당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www.stpaulchung.org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SNS

 **SPC Emmaus**
 **SPC Emmaus**

미사 시간 (MASS SCHEDULE)

※ 매 미사는 150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일미사	· 08:00 AM	평일미사	월요일	06:00 AM
	· 10:00 AM		화요일	07:30 PM
	· 05:00 PM		수요일	11:00 AM
			목요일	06:00 AM
			금요일	07:30 PM
			토요일	06:00 AM/05:00 PM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 사도)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